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, 항공부품업체 지원 총력

- 지난 3월 970여 명의 공무원이 5,123만 원의 성금을 모금 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데 이어, 사천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360여 명이 항공업체를 돕고자 7,500여만 원의 성금을 모금
- 사천시는 항공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△항공부품업체 지원사업 18개사 8억원 확대지원(공정개선사업, 설비투자) △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규모 확대(60억원⇒100억원) △지방세 지원(법인균등분 주민세 50% 감면, 세무조사 및 납부유예) △임대료 감면(경남테크노파크, 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 임대료 30% 감면) △상하수도 요금 한시적(5~7월 부과 분) 30% 감면분에 대하여 추가 50% 감면 등 다방면 지원책 마련 중
-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△항공업체 기업애로 상담 창구 운영, △항공기업 현장방문을 지속하고 있으며,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 의장 공동명의로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발송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
- 경남도의회 역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**대정부 건의안을 채택**
 - 박정열 의원 외 42명이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가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하고 사천·진주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
- 건의안은 5월 21일 제373회 경남도의회2차 본의회에서 상정, 처리된 뒤 청와대와 국회,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

□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

-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기 제작 물량 감소와 고용유지를 비롯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항공부품제조업의 생존을 위해 유관기관이 동참
- 대정부 건의문에는 항공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대책으로
▲정부 긴급지원 7대 기간산업에 항공제조업 포함 ▲항공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지정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
▲정부 항공전력화 사업 국내 조기발주 및 확대시행 등 포함
- 황태부 디엔엠항공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건의문은 5.11. 경남도 경제부지사에게 전달

□ KAI, 상생협력기금 100억 출연

- KAI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과 ‘대·중소기업·농어업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’ 맺고 올해 상반기까지 50억 원, 내년 상반기까지 50억 원 출연할 예정
- 상생협력기금은 20여 개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항공산업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, 신기술과 원가 절감 공정 개발,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



국내 동향

□ 인천공항공사, 항공수요 조기회복 위해 500억 지원

- 인천공항공사,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위한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제도적 지원 마련
-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회복 여객 1인당 1만원을 7월말부터 연말까지 약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,
- 심야 출·도착 항공편 대상 착륙료를 최대 100% 지원하는 등 화물 분야에

연간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함

• 항공업계 1분기 실적

항공사명	1분기 영업 실적	비고
대한항공	-566억 원	2019년 1분기 2,384억원 흑자
아시아나	-2,082억 원	2019년 1분기 118억원 적자
제주	-657억 원	
진에어	-313억 원	
티웨이항공	-223억 원	
에어부산	-385억 원	

□ 저비용 항공사, 기간산업기금 지원받을 듯

- 정부,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5월 말 가동 목표
- 기간산업 7개 업종 중 항공과 해운 업종 우선 지원 대상
-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미 4월 산업은행으로부터 각각 1조 2천억 원, 1조 7천억 원 지원 받음
- LCC 5곳 역시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1,260억 원 투입 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막심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
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논의에 착수하여 5월 말 지원 대상 결정기로 함



해외 동향

□ 에어버스, 대폭 감원 계획 검토

- 유럽 최대 항공사인 에어버스,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대적 감원 계획
 - ※ 프랑스 현행법 상 정리해고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전제하고 있어 사측 독단적으로 단행할 수 없음
- 모기업 EADS(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)와의 합병으로 비대해진 고위급 경영진부터 감축 예정이며 규모는 1만 명 추산
- 에어버스 최고경영자(CEO) 기욤포리는 “회사가 전례없는 속도로 현금 출혈을 하고 있다”며 신속한 비용 절감 조치를 강조한 바 있음

- 에어버스는 15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힘
-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코로나19로 올해 전 세계 탑승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**80% 이상이 감소**할 것으로 전망
-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는 “항공업계와 유관 산업 종사자 **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위험에 직면할 것**”이라고 전망

□ 보잉-엠브라에르 합작 무산

- 지난 2018년 말 美 보잉이 엠브라에르 상업용 항공기 부문을 매입하기로 하고 지분인수 협상 진행했으나 협상 시한인 4월 24일까지 최종 합의 무산
 - ※ 합작법인 자본금은 52억6천만 달러(6조5천억 원)로, 보잉이 지분의 80%인 42억 달러(5조2천억 원)를 부담할 예정이었음
- 엠브라에르는 보잉이 부실한 재무 상태와 737 맥스 결함 등 회사 평판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
- 엠브라에르는 보잉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, 합작법인 설립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
 - ※ 엠브라에르는 보잉·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~4위권의 항공기 제조회사로 꼽히며, 경전투기 'A-29 슈퍼 투카누(Tucano)'와 대형 군용 수송기 KC-390 등을 생산하면서 방산 분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.
- 엠브라에르는 추후 항공기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

작성일	2020. 5. 18.(월)	보고일	2020. 5. 18.(월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박예지(055-831-3470)